

치 사

오늘은 앞으로 우리 종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량(棟梁)들을 배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교육이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는 바람직한 수행자를 양성하여 불교와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이라는 자리에 선 스님들에게는 영광과 함께 우리 종단과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이 또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하는 스님들의 지난 4년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종단의 새 물결이 되고, 새로운 불퇴전의 보살이 되어야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마장의 격랑이 이는 번뇌의 바다, 중생들로 가득한 고통의 바다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 거친 바다는 큰 원력으로 배를 삼고, 대자비로 노를 삼아야 건널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닦는 수행에 매진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포교일선에서 대중을 교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며, 불조와 모든 선지식들이 고구정녕(苦口丁寧)하게 설하신 수행자의 본분입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바로 이 출가자의 본 분사에 충실한 여러분들의 손에 좌우될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의 일원이 되듯이 이제 여러분들 역시 종단과 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급격한 변화를 거둬내고 있는 지금의 인류사회 속에서 포교의 역군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며 정신적 지도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단의 일원으로서 상호 존중하며 화합하는 미덕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불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종단의 사부대중스님
을 비롯하여 중앙승가대학의 총장
태원스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치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년 2월 25일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자 승